

1월의 기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6. 2013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자,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박예림,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원소선, 이형춘, 정낙숙,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또한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체험적인 신앙

황해도 봉산군 당포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오두막 집에 살던 노부부가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꼬마가 달려오더니 집에 불이 났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소식을 들은 이 노부부는 집으로 뛰어가지 않고 밭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집이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이 있을 때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이 집이 없어진다고 같이 안계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이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러 그 오두막에 가보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만 불을 돌돌 말아가고서 동네 앞 개천으로 집이 넣어 버렸습니다. 오두막은 아무 것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할머니를 ‘기도의 할머니’로 불렀다고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며 기적적 창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학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13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해외선교



2013년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는 쉽 없이 진행되었다.

DCEM 세계 선교는 3월 6일 샌다이 국제 센터에서 열린 '2013 동북 치유대성회'로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앞두고 열렸던 이번 성회에서 일본 교회의 회개와 영적 각성, 부흥을 갈구하는 기도소리가 일본 동북지역의 중심도시 샌다이에 울려 퍼졌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대재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본인들을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로 위로했다.

이어 4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된 '한인 LA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다.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성장이 둔화된 미주 한인교회의 성도들에게 절대 긍정과 희망의 복음을 제시했다. 이날 대회가 열린 주님의영광교회는 1984년 LA 올림픽 복싱경기장으로 사용됐던 대형 체육관이었던 곳으로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록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60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미주 최대 한인교회 중 하나이다.

5월에는 호주 멜버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흥집회 '생명의 강 컨퍼런스(River of Life Conference)'에서 조용기 목사가 주 강사로 초청되어 호주와 멜버른의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멜버른교회연합이 주최하고 DCEM이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조 목사의 55년 목회사역 노하우를 전수해 호주교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복음을 통한 도시 및 국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됐다.

DCEM은 7월 9일 싱가포르 하베스트교회와 7월 10일 인도네시아 반둥 수카와르나교회에서 조용기 총재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고 절대긍정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4차원의 영성을 제시했다. 9일 시티하베스트교회 싱가포르 선택 시티홀에서 1만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인도한 조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한 믿음과 기도를 강조했다.

다음날 조용기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반둥을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50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무엇보다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이 같은 행사가 열려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뜨거웠던 아시아에서의 복음집회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7월 24-25일, 스웨덴 옘살라 '생명의 말씀(Life of Word) 교회'에서 열린 '유럽 콘퍼런스 2013'에 참석하기 위해 조목사는 유럽으로 날아갔다. 생명의 말씀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7월 21-28일 개최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만 2000여 명의 유럽지역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생명의 말씀교회는 1983년 올프 에크만 목사에 의해 창립됐으며 유럽에서는 이례적

으로 출석성도가 3000여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에크만 목사는 유럽지역 오순절 성령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며 CGI 이사진 중 한명이다.

제23차 세계오순절대회(PWC)가 8월 27-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갈보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62개국의 오순절 지도자와 성도 50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시대의 성령운동, 오순절 교회의 연대, 차세대 지도력 개발에 집중 논의했다. 대회 개막식의 강사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는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고, 전 세계 오순절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다시 한번 호주를 방문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다.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가 9월 25-26일 호주 서부 퍼스의 빅토리아 라이프 센터에서 '열방을 재정비하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다. 호주 퍼스의 최대교회인 빅토리아 라이프센터가 주최하고 DCEM이 후원한 이 컨퍼런스는 호주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정계와 재계 지도자와 20개국에서 온 교계 리더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는 2013년에도 이렇듯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진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의 메시지는 올 한해도 풍성한 영적 추수를 거두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갈보리 십자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중략)...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10절>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박혀 오랜 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영이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스스로 대신 짊어지고 속량하여 구원하셨습니다.

1. 지구상에 세운 마귀의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자 이 땅의 소유권은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세상이 그 순간부터 마귀가 인수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돼 버렸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마귀의 소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넘겨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온 천하민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돼 마귀의 폭정과 강압 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

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를 쳐부수고 이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3. 갈보리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

에베소서 2장 4절로 9절은 “공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

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던 죄의 권세를 모두 못 박아 청산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마귀는 공중 권세와 능력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제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며 주의 영인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려고 뾰뚱뾰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넓히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를 능히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동경교회 추계축복성회

조목사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임’을 강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동경교회 추계축복성회’가 지난달 11월 26일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정대원 목사)에서 열렸다. DCEM이 주최하고 순복음동경교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현지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집회에 참석, 복음을 전했다. 순복음동경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조 목사가 등단하자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조 목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본문으로 “주님의 명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키 시게마사 장로가 맡았다. 조 목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의 신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써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

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속의 자화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하였다. 조 목사는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2014년에 계획하는 꿈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일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입술로 시인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였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조목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받았고, 다가올 14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는 꿈들을 이뤄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의 문은 먼저 열렸지만,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일본에 교회를 설립해 복음화에 앞장서 왔다. 1976년부터 시작한 ‘일본이천만구명운동’은 순복음동경교회를 선두로 도쿄지방회, 동북지방회, 관동지방회, 보소지방회, 관서지방회, 규슈지방회 등 총 80개의 순복음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2013년도 헌신예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선교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2013년에도 DCEM 헌신예배는 씬 없이 진행되었다. 설교자로 초빙 받은 DCEM 사무총장 시가키 시게마사 장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성전 및 독립제자교회를 방문하여, 자신이 조용기 목사와 함께 했던 선교현장의 이야기와 신앙 간증을 성도들과 나누며 은혜로운 시

2013년 DCEM 헌신예배 현황		
2월 1일(금)	여의도순복음 하남교회	담임 임동환 목사
2월 15일(금)	성산순복음교회	담임 송영준 목사
3월 15일(금)	순복음원당교회	담임 고경환 목사
3월 22일(금)	순복음도봉교회	담임 김용준 목사
4월 12일(금)	순복음강남교회	담임 최명우 목사
4월 26일(금)	광주순복음교회	담임 임석명 목사
5월 3일(금)	순복음시흥교회	담임 권경환 목사
5월 17일(금)	여의도순복음성동교회	담임 박의섭 목사
5월 24일(금)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담임 김삼환 목사
6월 14일(금)	순복음분당교회	담임 이태근 목사
6월 28일(금)	순복음영산교회	담임 강영선 목사
10월 3일(금)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	담임 이장근 목사
10월 6일(주일)	제일좋은교회	담임 엄진용 목사
11월 22일(금)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담임 정재명 목사